

다산포럼



고 세 훈  
고려대 명예교수

영국에서 공작(duke)은 귀족 서열 중 가장 높은 작위다.(유럽 대륙에는 공작 위에 대공(大公)이 있었지만 왕족 밖의 귀족이라기보다는 소국의 군주였다.) 공작은 전쟁에서 남다른 공을 세우거나 왕의 서자들에게 주로 수여되었다. 엄정한 장자 상속 원칙이 적용되고, 일단 계승되면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사망하지 않으면 포기도 불가능하다. 왕족 공작을 제외하면 현재 24명이 남았는데, 19세기 말 이후 공작 작위의 수여가 사실상 중단됐으니 오래지 않아 자연스럽게 소멸될 운명이다. 최근엔 상원마저 세습 귀족을 배제하면서 공작의 정치적 영향력도 사라졌는데, 인간이 수명 연장을 위해 안달하듯, 영국 공작도 남자 후손의 확보 등 가문의 소멸을 막기 위해 필사적이지만, 세월과 더불어 불가피한 몰락을 겪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생애를 닮았다.

물론 혈통에의 집적이 권력이나 부(富) 등 지키고 물려주어야 할 변변한 무엇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

혈연의 공동체를 넘어서

다. 언젠가 나는 한 강연에서 ‘아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가?’라고 묻은 적이 있었다. 시대가 변했고 청중도 신세대 대학생들이라 내 질문이 낡은 세대의 고루한 호기심 정도로 치부될 줄 알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3분의1 이상의 학생(이 중에는 여학생도 여럿 있었다)이 손을 들어 동의를 표했다. 뻔하고 고루했던 것은 오히려 뒤이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대체로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언뜻 종립적으로 보이는 남아 선호 사상이지만, 그 단순한 개념이 얼마나 많은 여성에게 고통을 주고 가정을 파괴해 왔는지 나를 열변을 토한 셈인데, 충고란 동의할 때만 현명한 것이라 했던가.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다.

대를 잇는다는 이유가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면, 부의 대물림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가령 선한 국가에 대한 변변한 경협도 기억도 없는 우리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강박 관념으로 인하여, 불법 탈법을 동원해서라도 대를 물려 자기 소유를 보존하려는 직계 혈통주의 정서를 깊이 내면화해 왔다. 그리하여 후손들의 재산 싸움이나 근자에 빈번해진 자식들의 패륜까지 가지 않더라도, 부가 대물림되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적 결말의 증거들은 넘친다. 보다 심각한 것은 그러한 정서가 우리를 이웃과 공적 영역에서 차단시킨다

는 점이다. 한국 사회의 자선(慈善) 실태는 이 점을 잘 드러내 보인다. 예컨대 미국 사회는 취약한 국가 복지를 민간의 기부 전통이 상당히 보전하는데, 자선의 규모는 매년 증가해서 2006년에는 GDP의 1.67%에 달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지극히 일부가 그것도 비정례적으로 기부하기 때문에 통계조차 부실한 형편이지만) 대략 0.05%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의 33배도, 영국(0.73%)의 15분의 1, 싱가포르(0.29%)의 6분의 1에 해당한다. 자살률, 빈곤율, 비정규직 비율, 출산율, 이혼율 등 지표가 보여주는 바, 한국이란 공동체가 급속히 해체되고 있다는 주장이 무리가 아니다.

난민을 혐오하고 가난한 외국인을 기피하는 태도도, 순혈주의라는 상상의 개념이 보다 집단적이고 공격적으로 표출된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두려운 것은 이런 태도가 단순히 경제적 이해의 산물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정치적 소환이 가능한 기질 혹은 아예 생활 방식으로 태고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가령 우리가 파시즘을 그저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한 형태 정도로 파악하는 한, 우리는 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히틀러를 위해 기꺼이 죽음을 택했는지, 오늘날 대서양 양안을 휩쓰는 우익 포퓰리즘의 실체는 무엇인지, 적절히 설명할 수 없다.

작가 은희경은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

은 상투적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대하는 우리의 상투성’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형성됐는지도 모르는 편견의 감옥에 갇혀 그걸 기준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고 히로애락을 거기에 걸며, 완강한 고집이 마치 진리를 수호하는 자의 엄숙한 태도라도 되는 양 살아간다. 예컨대 ‘그래도 혈육밖에 없다’는 친숙한 덕담도 실은 인간과 관계의 복잡성을 단순히 사상해 버리는 무책임한 단사(斷辭)이기 쉽다.

‘부도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돼라’(창세기)는 말은 가족이 혈연이나 혈통에 앞서 먼저 연약의 관계로 시작되었다고 들려준다. ‘맥베스’에 나오는 ‘새 아침이 오면 새 과부들과 새 고아들이 울부짖고 새 슬픔들의 절구가 온 하늘에 진동한다’는 맥더프의 유령탄 탄식처럼, 삶은 도처에서 비극적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혈통의 담장을 두르고 그 안에서 서성일 것인가. 명심보감 계선 편에는 이런 잠깐은 충고가 들어있다. ‘돈이나 책을 자손에게 물려준다 해도 자손이 반드시 지키고 읽는다고 볼 수 없으니, 부디 음덕을 쌓아 자손을 위한 계교로 삼으라.(積金以遺子孫 未必子孫 能盡守 積書以遺子孫 未必子孫 能盡讀 不如積德於冥冥之中 以爲子孫之計也.) 혈육이 모여 담소하며 즐거움을 나누던 이별 설에 드문드문 들었던 생각들이다.

음이 무거운 것은 울헤가 지나면 이 기념 열풍도 ‘언제 그런 일이 있었지?’라는 식으로 사라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과 74년 전에 조국의 광복을 맞았습니다. 아직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았으며 결코 먼 옛날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학교 교육 과정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독립 정신을 계승하고, 선열들의 넋을 기리자’고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늘 그때뿐이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었고, 매년 3월 1일과 8월 15일이 되면 단골 화두였던 ‘독립과 선열들의 넋’을 100년을 계기로 잊지 맙시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광복을 경험하고 우리 민족의 분단을 직접 경험한 제가 부닥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고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안위보다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자신을 내건것 젊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구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길동무가 됩시다.

NGO칼럼



안 중 일  
광주백범기념관(사)백범문화재단 이사장

백범 김구 선생과의 만남은 1998년 어느 늦가을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협회가 서울에만 있었는데, 서울 기념사업협회 주최로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백범 김구의 겨레 사랑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전시회를 계기로 김구 선생과 전라도와의 인연, 김구 선생의 정치 후원금으로 광주 ‘백화마을’이 조성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 중 한 사람인 김구 선생이 따뜻한 시선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본 진정한 지도자로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동포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한 선생이

백범 김구 선생과 함께한 20년

좋아서, 또 누군가는 우리 고장과 선생의 인연을 알려야했기에 당시 전시회를 관람했던 지역의 원로들이 모여 ‘광주전남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협회’를 만들었습니다.

1999년 6월부터 지금까지 김구 선생 사진 액자를 사무실에 모셔두고 살아온 지 벌써 20년입니다. 그동안 광주전남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협회는 지역민과 협총 시설을 기했고, 청소년들에게 백범 일지를 기증했으며, 독립운동 자료 전시회도 개최했습니다. 2011년에는 사단법인 백범문화재단으로 다시 태어나 2015년 ‘백화마을’ 옛터에 ‘광주백범기념관’을 건립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광주 백범기념관은 김구 선생 뿐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으로 활동했던 일강 김철 선생과 백강 조경한 선생, 광주·전남 출신 독립운동가들도 조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진심은 모두 같기 때문입니다.

광주·전남은 의왕의 고장답게 항일 운동이 활발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

을 시작으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만세 운동이 일어났을 때, 광주에서도 3월 10일 1000여 명의 군중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기미년 광주에서 울린 만세 함성은 우리나라의 3대 만세운동 중 하나인 1929년 11월 3일 학생독립운동으로 계승됐고, 1980년 5·18 민주화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올해 2019년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뿌리인 3·1 운동이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또한 3·1 운동 정신에 따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100번째 생일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와 각계 사회단체에서 100주년 기념 사업을 성대히 추진 중입니다. 114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광주도 다양한 기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고결한 희생을 무릅쓴 선열들에 대한 기념 사업이 어느 때보다 풍성하여 더없이 기쁩니다. 하지만 흥수처럼 쏟아지는 공모 사업과 기념 사업에 대한 일련의 현상들을 보면서 제마

양돈업에서 또 다른 가치를 찾는다

필자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식육 가공업과 식육 포장 처리업에 뛰어들어 돼지 머리·내장이 더 이상 부산물이 아닌 주산물이 되도록 하는 일에 전념해왔다. 결과부터 말하면 2017년 한 해 동안 상근 종사자 27명을 채용해 5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돼지 부산물을 가공해막창·오소리 감투·돼지 머리 등으로 판매하고, 양념 소스와 즉석 식품 관련 식재품을 연구 개발하며, 직접 유통까지 한 결과다. 이로 인해 전남도로부터 2018년 고용 우수 기업 인증을 받았다.

성공 비결은 최대 생산자인 전남을 부산물의 최대소비자로 만든 것이었다. 원래 전남은 돼지고기 생산이 많은 곳이어서 가격을 주도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가공·유통 체계는 육류 소비가 많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 권역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정작 생산지에서 가까운 전남에서는 가공·유통 구조가 비효율적이다. 전남에선 부산물이 부산물로서만 치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생산자인 전남이 오히려 가치의 하락을 주도하는 셈이다.

그래서 필자는 기존 외부 유통 업체에만 의지해오던 유통 방법을 바꿨다. 가공업에 유통망을 연계해 생산지에서 직접

社 說

광주형 일자리 성공 위해 시민 참여 절실하다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을 위한 합작 법인에 시민들도 주주로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투자에 이어 지역민과 노동계까지 경영에 함께 하는 명실상부한 노사민정 이사회를 구성해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뒷받침하자는 취지다.

지난달 투자 협약을 체결한 광주시와 현대차는 모래 합작 법인 설립을 위한 실무 협의에 나서 투자자 모집을 위한 세부 조건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합작 법인의 총 자본금은 7000억 원으로 이 중 2800억 원을 자기 자본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미 광주시가 590억 원(21%), 현대차가 530억 원(19%)을 부담하기로 했고 나머지 1680억 원은 지역 상공인과 지역 기업, 현대차 관련 기업, 공공기관 등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가 높은 만큼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시민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남은 자기 자본의 10% 안팎을 시민 주주 공모 방식으로 채우는 방안을 현대차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민과 노동계가 합작 법인과 공장 경영의 한 축으로 자리 잡도록 주주 자격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바탕으로 이뤄 낸 국내 최초의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이다. 하지만 투자자 모집에 나서 투자자 모집을 위한 세부 조건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합작 법인의 총 자본금은 7000억 원으로 이 중 2800억 원을 자기 자본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미 광주시가 590억 원(21%), 현대차가 530억 원(19%)을 부담하기로 했고 나머지 1680억 원은 지역 상공인과 지역 기업, 현대차 관련 기업, 공공기관 등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가 높은 만큼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시민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남은 자기 자본의 10% 안팎을 시민 주주 공모 방식으로 채우는 방안을 현대차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민과 노동계가 합작 법인과 공장 경영의 한 축으로 자리 잡도록 주주 자격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황교안 전 총리 최순실 특검 연장 거절했다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안’ 후폭풍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당 당권 주자들에게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망안 당사자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한국당 지도부가 이에 대해 명확하게 사죄하고 세 사람(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해 법적·정치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해법”이라면서 한국당 당권 주자들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가장 유력한 주장인 황교안 전 총리는 ‘당 입장에 대해 같은 생각’이라며 짤막하게 언급했다 한다. 그는 제명 필요성에 대해서도 “당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리라 생각한다”고 비켜나갔다.

당권 주자들 중 김진태 의원은 ‘망안의 발원지’인 지난 8월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장본인이니 차치해 두자. 하지만 황 전 총리는 당장 가장 유력한 당권 주자이니 한 번 짚고 넘어

가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태를 조사한 박영수 특검 연장을 거부한 것이 박 전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어려움을 당하신 것을 보고 최대한 잘 도와드리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보도되자 각계의 비판이 쏟아졌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황 전 총리가 박근혜 국정 농단의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물론 황 전 총리는 이에 대해 “수사할 것이 다 됐기 때문에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황 전 총리는 통합진보당 해산이 자신의 업적이라고 당당히 말한 바 있다. 정부 여당에는 운동권 철학이라는 딱지를 붙이기도 했다. 그런 그가 대한민국 제1야당의 당 대표로 유력시된다는 사실을 접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착잡할 수밖에 없다.

無 等 鼓

“사막사막/장죽에도/지붕에도/대나무에도/ 걸어가는 내 머리 위에도/ 잘 살았다/ 잘 견뎠다/ 사막사막.”(윤금순, ‘눈’)

윤금순(83) 할머니가 집 마당에 수북하게 쌓인 눈을 싸리비로 쓸어 낸다. 한참 눈을 치우던 할머니는 허리를 펴고 잠시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본다. 최근 개봉한 다큐 영화 ‘시인 할매’(감독·이종은) 도입부 장면이다.

곡성 ‘시인 할매’

곡성군 입면 서봉리 탑동 마을은 ‘시인의 마을’이다. 마을에 들어서면 담벼락에 ‘할매(할머니) 시인’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함께 자작시들이 군데군데 붙어 있다. 시인들의 나이는 대부분 70~80대.

할머니들은 어릴 적 지독한 가난과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해 모두들 ‘까막눈’이었다. 한데 마을에 조순 가정과 한 부모 가정 아이들을 위해 ‘길 작은 도서관’을 연 김선자(49) 관장이 이들 할머니들의 평생 ‘할’을 풀어 주었다. 김 관장은 2009년에 마을 할머니들에게 한글을 가르쳤고 이듬해에는 시 수업도 시작했다.

뒤늦게 한글을 깨친 할머니들은 연필

을 그려주고 가슴속에서 터져 나오는 이야기를 달력 뒷면에 꼭꼭 눌러냈다. 글씨는 비뚤비뚤하고 맞춤법도 틀렸다. 하지만 힘겨운 시집살이와 가난,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에 대한 그리움 등 인생의 희로애락을 솔직하게 시에 풀어 냈다. 모두 아홉 분의 할머니들이 쓴 시는 ‘시집살이 시집살이’(2016년)와 ‘눈이 사뿐사뿐 오네’(2017년)라는 두 권의 시집으로 묶여 세상에 선을 보였다. 양양금(72) 할머니는 “쓰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글자를 한 판 한 판(느리게) 쓰니까, 생각하면 쓰고 생각하면 또 쓰고 그랬다”고 털어놨다.

다큐 영화 ‘시인 할매’의 연출을 맡은 이종은 감독은 할머니들이 낸 ‘시집살이 시집살이’를 읽고 감명을 받아 꼬박 1년 할머니들의 생활상을 영상에 담았다. 할머니들은 ‘(세상을) 뽀로(그) 살았다’고 담담하게 말한다. 시인 할매들의 연륜이 쌓인 시와 인생살이를 고스란히 담은 영화는 지금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데, 이들의 ‘문화 사랑방’인 작은 도서관은 지붕이 낡고 담장마저 기울어 보 수 공사가 절실하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기 고



최 근 석  
농업회사법인 좋은사람㈜ 대표

돼지 머리·내장과 족발은 흔히 부산물이라 불린다. 우리가 즐겨먹는 삼겹살·갈비·목살 등 정육에 부차적으로 생산된 산물이란 뜻이다. 그래서인지 머리·내장은 딱히 정해진 원가가 없다. 소비가 있으면 판매가 되지만, 없으면 거의 버려지다시피 하는 것이다.

이 부산물을 좀 더 값어치를 높일 수는 없을까? 맛있고 든든한 한 끼로, 혹은 고 달콤 한 잔의 친구로 만들면 어떨까? 필자는 돼지 머리·내장을 더 이상 부산물이 아닌 소중한 농부의 땀으로 여겨 제대로 된 가치를 찾아주고 싶었다. 이것이 양돈 농가와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가치 있는 일이라 확신했다.

그래서 뛰어난 것이 머리·내장을 이용한 식육 가공업이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부모님의 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양돈업에서 또 다른 가치를 찾는다

농군의 아들로서 안타까웠다. 당시들이 평생 땀 흘려 일궈온 가치들을 보잘 것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누군가는 그 가치를 값진 것으로 탈바꿈시켜주는 일을 해야 한다. 높은 생산비가 드는 우리나라 농업 구조상 수입 농산물과 경쟁하기 쉽다. 밀려오는 수입 농산물은 우리 농산물이 비싸진다고 해서 농부에게 좋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소비자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상황은 반기지 않는다.

그래서 주산물 외에 부산물의 부가가치화는 우리 농업이 연명하기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다. 농업 자체가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되고 소비자가 우리 농산물을 원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다.

2017년 기준 농업 생산액 1위 품목은 양돈업이다. 110kg 돼지 한 마리에 78%인 85kg을 농가에 정산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게 연간 7조 원에 이른다. 그렇다면 남은 25kg은 어디로 갔을까? 추산컨대 이 가운데 12kg 가량은 식용이 가능하다. 실제 우리가 흔히 먹는 돼지국밥·편육·곱창 등이 이 부위를 활용한 식품이다. 결국 소비가 되면 부산물이고 안 되면 부산물이니, 소비가 되도록 가공하면 되는 것이다.

|  |                   |                           |                  |
|--|-------------------|---------------------------|------------------|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                   |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안내  |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 월 금 220-0515          | 문화사업 금 220-0541  |
|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61      | (FAX 222-8005)            | (FAX 222-0195)   |
| 정치부 220-0632   | 여론채부 220-0652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
| 경제부 220-0663   | 예향부 220-0692      | (FAX 222-0195)            | (FAX 222-0195)   |
| 사회부 220-0664   | 사진부 220-0693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전남부 220-0642   | 체육부 220-0697      | (FAX 02-773-9335)         |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